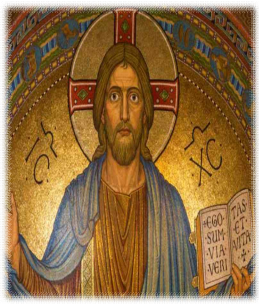


메시아이신 예수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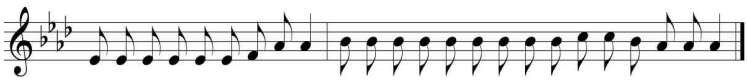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즈카르야 9,9-10



(후렴) 저의임금이신하느님, 영영세세당신이름을찬미하나이다.

화답송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 8,9.11-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 마태오 11,25-30

성가 | 입당성가 [50]
예물준비 [213]
영 성 체 [178]
파견성가 [438] ♬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세영 야고보, 남정희 아녜스	이은경 헬렌

생미사	봉헌
김은성 피터	가족
안영옥 베네딕다 영명축일	성모회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연령회 야외행사에 초대합니다.

웅장하고 감동적인 '모세' 뮤지컬 관람~

출발: 7/12(수) 7am 31st. 브로드웨이 코너
장소: 펜실베니아 랭카스터 밀레니엄극장
*아침식사(샌드위치,두유)와 점심(식당) 제공됩니다.
준비:묵주. 문의: 연령회장 표카타리나 516-987-4111

▶레지오 야외행사

7/15일(토) NJ/Tallman Mountain State Park
신청: 윤루시아 347-633-3767

▶제27차 2023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예수님께서 성령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일시: 7/22(토) 9am-7pm, 7/23(주일) 9pm-5pm
장소: 포트리 하이스쿨 오디토리움4 참가비: $35(양일간 점심과 간식제공) 문의: 성령기도회장 이안나 917-579-5072

▶요셉회, 성모회 야외행사

7/3(주일) NJ/Tallman Mountain State Park
신청: 김테클라 646-789-1433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는 말마디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덧붙여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성가대 반주자를 찾고 있사오니 피아노 전공하신 본인, 또는 주변의 지인중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맨하탄 성당 청년 여름캠프에 초대합니다.

날짜: 8/25-27(2박3일)
참가비: 7/30까지: $200,
8월은 인원마감되면 신청불가, 인원마감 전이면 $220
문의: 청년회장 양젬마 kakao ID: Jcy258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첫만남: 2023년 10/1(주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성야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
문의: 김효주 수녀 347.834.5784

〈성모의 밤 선교봉헌카드 내용 中 〉
"저는 제 주변에 **가톨릭에 입교를 권할 분**을 관심있게 보며 그분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예수 성가정회(FYMMY)회장 및 회원모집

젊은 부부들이 주님안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의지하는 모임입니다.
문의: 청년분과장 강토마스 310-413-1653 카톡: kangkenny

▶주일학교 교사모집 신청: 신부님

▶성경공부(BIBLE Academy) 1학기 종강

주일반, 7/9(오늘) 오후 1시 종강입니다.	김효주 수녀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7/9	이지훈 아녜스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덕미 안젤라	김승현마리아
7/16	김유화 데레사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미혜 이레나	김미혜 이레나	유정옥 유스티나	이유채아멜리아 최예준사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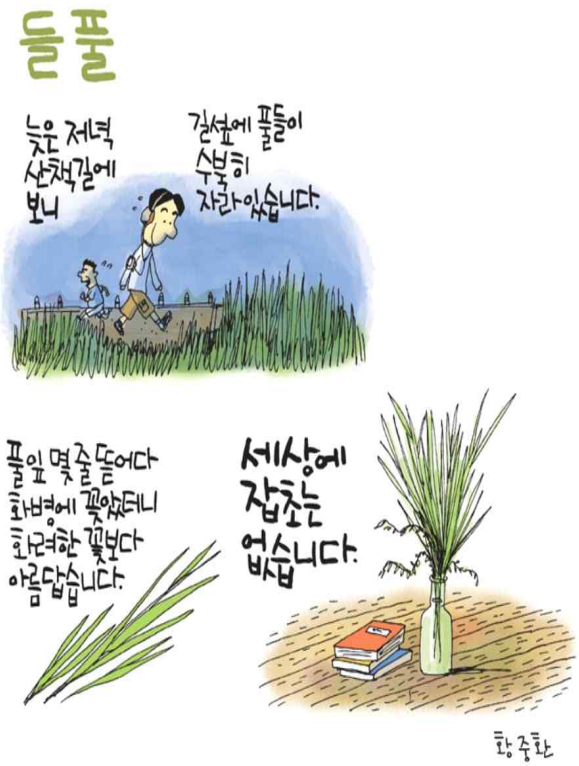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33 St.) New York, NY 10001
Tel : 347-840-2112
Fax :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맨하탄 한인성당 25주년 발자취 기념 책자 발간

*무료로 책자를 보시는 방법: 옆 코드를 스캔하신후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로딩에 시간이 걸리니 링크 누르시고 좀 기다리셔요.

성경을 읽으며

1.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인가? 단일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여쭈어보면 교우님들 중 열의 아홉은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교류하여왔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종교에서 단일성을 추구했고,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 우상숭배 척결 등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확장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민족을 확실히 구분 짓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이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문자로 기록했던 이들은 사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확장성보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민족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이민족들을 향해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대한민국을 단일 민족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라고 배웠던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단일 민족 국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단일 민족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와 이스라엘을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을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은 성경의 묵상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글자로 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물론 당연히 글자로 된 부분을 제대로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글자만 읽어들인다면 과연 성경을 완전히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말씀'이라고 해왔습니다. 분명 성경의 글자처럼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은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 말씀에는 '말 있는 말씀'도 있고 '말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있는 말씀'은 알겠지만 '말 없는 말씀'은 생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진수는 '말 없는 말씀', 다시 말해 '행간'에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깨닫기 위해 노력하면 더 큰 결실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는 성경의 행간을 열어주는 열쇠로 또 행간으로 나아가는 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들의 행간에서도 말씀을 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종교신앙의 처음에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분명히 가려 혼란과 오류를 수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더 성장하고 완성되기 위해 종교를 뛰어넘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교에 너무 철저하면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배척하기도 합니다. 종교는 정신의 확장을 막고 분열을 고착시키기도 합니다. 종교신앙에 대한 이해가 고정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천주교 신앙은 사람의 정신을 확장하고 분열을 뛰어넘게 합니다. 또 고정된 생각에 머물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할 수 있습니다. 창조 혹은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발상의 전환은 이전에 머물던 그 편안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신앙은 참된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익숙했던 신앙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또 신앙은 참된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익숙했던 신앙을 뛰어넘으라고 있습니다.

4. 천주교 신앙은 돈과 의식주처럼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종교에 목숨을 거는 극단적인 신봉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질문은 결코 아니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종교 없이는 죽어도 못 사는 것'과 '종교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중 과연 어떤 것이 낫습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 질문들이 그동안 너무 익숙했거나 또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믿음'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을 새로이 바라보고 업그레이드하여 급변하는 시대에도 슬기롭게 살아내는 신앙을 건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 마르코 신부